

“이 상은 모든 소년 소녀들의 ‘희망 등불’”

올해 예상을 넘긴 배우 양쯔충이 13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5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아시아 배우 최초로 여우주연상을 받으며 새로운 전성기를 맞았다.

LA(미국) | AP·뉴시스



중 이민가족을 그린 ‘에에올’ 여우주연상 포함 최대 7개상 현지 “95년 역사 가장 큰 업적” 키 호이 관은 남우조연상 수상

배우 양쯔충(양자경·61)이 아시아 배우 최초로 오스카 여우주연상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높고 단단했던 아카데미의 유리천장을 깨 부렸다.

양쯔충은 13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5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함께 후보에 오른 케이트 블란쳇, 아나 데 아르마스, 앤드리아 라이즈버리, 미셸 윌리엄스 등을 제치고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아시아계 배우가 오스카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의 후보 탈락에도 불구하고 양쯔충의 수상으로 오스카에서 ‘아시아 강세’가 두드러져 눈길을 끈다.

●95년 역사상 첫 아시안 여우주연상

양쯔충이 영화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에에올)는 아시아계 미국인 가족이 다중 우주를 넘나들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극중 ‘아메리칸드림’을 꿈꾸며 미국에 온 이민 1세대인 세탁소 주인 에벌린을 연기했다.

말레이시아 출신 홍콩 배우인 양쯔충은 할리우드 진출 24년 만에 처음 주연한 것은 물론 첫 오스카 여우주연상까지 거머쥐었다는 점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유색인종 배우가 여우주연상을 받은 건 2001년 ‘몬스터 볼’의 할리 베리 이후 21년 만이다.

그는 무대에 올라 “이 상은 나와 같이 생긴 모든 소년·소녀들에게 희망과 가능성이 되는 등불이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시상식 이후 현지 언

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아시아 공동체를 넘어 모든 소수민족이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매체들은 “양쯔충의 수상은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USA투데이는 “전국적인 찬사를 받은 베테랑 배우 양쯔충은 아시아 배우 최초로 가장 큰 상 중 하나를 받으며 이날 밤의 주인공이 됐다”고 보도했고, 할리우드 리포터는 “양쯔충은 아카데미 95년 역사의 가장 큰 업적을 남기게 됐다”고 말했다.

●‘기생충’부터 ‘에에올’까지

아시아 배우들과 감독이 중심이 돼 만든 판타지 코미디 ‘에에올’은 여우주연상 외에도 작품상과 감독상(다니엘 관·다니엘 셰이너트) 등 7개상을 휩쓸며 이번 아카데미 최다 수상작으로 등극했다.

특히 중국계 다니엘 관 감독은 ‘기생충’ 봉준호 감독에 이어 아시아인으로서는 두 번째로 작품·감독·각본상을 모두 받았고 양쯔충의 남편을 연기한 베트남계 키 호이 관은 1984년 ‘킬링필드’ 행 S. 응고르(캄보디아) 이후 39년 만에 남우조연상을 받은 아시아 배우가 됐다.

영화 ‘기생충’을 시작으로 두드러지고 있는 아시아 영화와 배우, 스태프 등 관계자들의 활약이 ‘에에올’로 정점을 찍은 분위기다. 앞서 2021년 중국계 클로이 자오 감독(노매드랜드)과 윤여정(미나리)이 각각 감독상과 여우조연상을 받았고 2022년에는 일본의 ‘드라이브 마이 카’가 작품상 등 6개 부문에 올라 국제영화상을 받았다.

영화 전문 매체 더 랩은 “봉준호, 윤여정에 이어 양쯔충과 키 호이 관이 오스카 수상자가 된 것은 아카데미가 아시아의 이야기를 점점 더 끌어안고 있다는 걸 보여 준다”고 말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뻔한 관광지 그만 여행 유튜버 뜬다

ENA ‘지구마블’ 여행 유튜버 섭외해 차별화

최근 방송가에 해외여행 예능 콘텐츠가 쏟아지면서 여행 유튜버들이 새삼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일부 프로그램들이 비슷한 여행 콘셉트 등을 내세워 시청자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신선한 여행지를 발굴하고, 유튜브 활동으로 쌓아온 노하우를 활용해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ENA ‘지구마블 세계여행’에 출연하는 콕투브(콕준빈), 빠니보틀(박재한), 원지(이원지)가 대표적이다. ‘콕 빠원’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이들은 ‘유튜브 스타’로 통하는 여행 유튜버들로, 프로그램에서 주사위 결과에 따라 무작위로 해외여행을 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세 사람은 저마다 라오스,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등을 여행하면서 숨겨진 관광지와 현지 주민들의 맛집 등을 소개해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튜버들이 저마다 유튜브로 공개한 영상들은 10일 만인 13일 모두 110만 조회수를 넘길 만큼 화제다.

다른 예능 제작진도 해외 여행 포맷에서 ‘전문가’로 통하는 이들을 섭외하기 위해 물밑 작업에 돌입했다. 이미 빠니보틀은 최근 종영한 MBC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에 출연했고, 콕투브는 배우 허성태, 이시연, 안보현과 함께 지난날 호주에서 tvN 새 여행프로그램 ‘니가 가라 시드니’(가제)를 촬영했다.

스타들의 해외여행 포맷이 식상해지면서 이들을 찾는 제작진이 늘어나는 추세다. 앞서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배경으로 해 2일과 7일 첫 방송한 JTBC ‘몽골리턴즈’와 tvN ‘텐트 밖은 유럽-스페인 편’은 스타들의 배낭여행을 비슷한 형식으로 그리면서, 똑같은 현지 관광명소들을 잇따라 소개해 시청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유지혜 기자

연예뉴스 HOT 3

영화 ‘스즈메의 문단속’ 6일만에 100만 관객

일본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속’이 올해 개봉한 영화 중 가장 빠른 속도로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13일 수입사 미디어캐슬에 따르면 ‘스즈메의 문단속’은 개봉 6일째인 이날 오후 12시 30분께 누적 관객수 100만 명을 넘었다. 이는 현빈이 주연해 개봉 7일 차에 100만 명을 넘어선 ‘교섭’보다 빠른 기록이다. ‘스즈메의 문단속’은 여고생 스즈메가 청년에서 의자로 변한 청년과 함께 재난을 부르는 문을 닫으려 모험에 나서는 이야기를 담아, 개봉일인 8일부터 전날까지 일일 박스오피스 정상을 유지하며 흥행하고 있다.

이민호, 외국인 대상 ‘좋아하는 한국 배우’ 1위

배우 이민호가 ‘2023년 해외 한류 실태 조사’ 결과(2022년 기준) 1위를 차지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 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해외 주요 국가의 케이(K)컬처 콘텐츠 이용 현황과 확산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해외 한류 실태 조사’를 실시해 발표했다. 관련 조사에서 ‘현재 가장 좋아하는 한국 배우는 누구입니까?’라는 주관식 질문에 2만5000명의 응답자 중 9.1%가 이민호를 꼽았다. 뒤를 이어 공유(2.7%), 현빈(2.4%), 송혜교(2.0%), 이종석(1.5) 등이 나란히 순위에 올랐다. 현재 이민호는 드라마 ‘별들에게 물어봐’ 촬영을 마쳤고, 애플 TV+ ‘파친코’ 시즌2 촬영 중이다.

손석구·최희서, 연극 ‘나무 위의 군대’ 출연

배우 손석구, 최희서 등이 연극 ‘나무 위의 군대’에 출연한다. 6월 20일부터 8월 5일까지 서울 LG아트센터에서 개막하는 연극은 참혹한 역사 속 실화를 바탕으로 전쟁의 무의함을 전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전쟁 경험이 많은 상관 역에는 배우 이도엽이 맡고, 삶의 터전인 섬을 지키기 위해 입대한 신병 역에는 손석구가 나선다. 두 사람 곁에 있는 신비로운 존재 여자 역에는 최희서가 맡는다. 특히 연에게 ‘절친’인 손석구와 최희서는 2014년 연극 ‘사랑이 불타버라’에도 함께 출연했고, 9년 만에 다시 한 무대에 오른다.

※신문제작관계상 14일 화요일자 TV편성표는 실지 못했습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오징어게임2 ‘시동’

5~70세 남녀 보조출연자 모집
5월 오디션·7월 촬영 시작 목표



전 세계를 휩쓴 메가 히트작 ‘오징어게임’ 시즌2가 조·단역 캐스팅을 시작으로 닷을 올린다. 2021년 공개 후 2년 가까이 뜨거운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의 새로운 시즌인 만큼 전 세계인을 비롯해 외신들도 촉각을 드러내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오징어게임’ 시즌2는 7월 초 촬영 시작을 목표로 2월 말부터 조·단역의 보조출연자 모집을 시작했다. 이달 말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5세~70세까지 전 연령대 남녀 보조출연자의 프로필 접수를 받는다. 해당 내역을 위한 캐스팅 오디션은 5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배우 스태프 구인 전문 커뮤니티에 따르면 일반 작품의 스태프 모집 글은 평균 조회수 1000~5000건인 것과 달리 ‘오징어게임’ 시즌2는 2만6000건을 넘으며 인기를 입증했다. 한 캐스팅 및 보조 출연 업체 관계자는 “‘역대급’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프로필 지원자들이 모집에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연출자 황동혁 감독은 시즌2 제작을 공식화하며 성기훈 역의 이정재와 프론트맨과 ‘딱지남’으로 각각 신스틸러 역할을

했던 이병헌과 공유가 또 출연한다고 말했다. 그 외의 다른 주연배우들의 라인업은 공개되지 않았다.

시즌1에 대한 글로벌 팬들의 인기가 시즌2의 내용에 대한 추측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외신들도 황 감독이 여러 인터뷰 내용을 힌트 삼아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를 예측하고 있다.

미국 스크린랜트는 “경찰 집단에 대해 더 파고들고 싶다”는 황 감독의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며 “이병헌이 어떻게 강자의 편에 서게 됐는지에 대한 전사와 진행 요원의 사연이 밝혀질 것”이라며 “1편에서 생사 여부가 불투명하게 표현된 이병헌의 동생이자 경찰인 위하준과 이정재가 팀을 이뤄 게임의 설계자들에 대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선한 캐릭터였던 이정재의 도덕성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황 감독은 “시즌2는 이정재가 시즌1에서 배운 것들과 자신의 목적과 목표 등을 새로운 게임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가 주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혹시 너도?...방송가 학폭·JMS 폭로에 ‘덜덜’

‘더 글로리’ 안길호 PD 학폭 사과
강지섭·경윤, JMS 연관 직격타

최근 방송가가 학폭 의혹,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연관설 등으로 후폭풍을 맞고 있다. 최근 학폭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 JMS 총재 정명석의 실체를 다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등이 화제를 모으며 일부 연예인들이 관련 논란에 휩싸이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13일 JTBC 아이돌 그룹 오디션 프로그램 ‘피크타임’의 참가자 김현재가 학폭 논란으로 하차했다. 최근 온라인에서 김현재가 중학생 시절 학폭 가해자였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제작진은 이날 “단시간 안에 명확하게 종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논의 끝에 김현재의 하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더 글로리’의 연출자 안길호 PD가 1996년 필리핀 유학 당시 후배들에게 학폭을 가했다는 논란에 휘말려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학폭 드라마의 메시지가 훼손됐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배우 강지섭과 그룹 DKZ의 멤버 경윤 등은 JMS 신도로 자목돼 곤욕을 치렀다. 강지섭은 12일 SNS를 통해 “4~5년 전 단체

에 나갔다가 내 신앙관과 이질감이 느껴져 떠났다”고 밝혔으나 비난이 끊이지 않으면서 결국 SNS를 탈퇴했다. 경윤도 8일 “부모님이 다니시는 일반 교회인 줄 알았다”면서 탈교했다고 밝혔으나 팬들의 분위기는 여전히 냉담하다.

연예 예능 포맷의 넷플릭스 ‘솔로지옥3’, 채널A ‘하트시그널’ 등과 오디션 서바이벌 포맷의 MBC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2’ 등에도 비상이 걸렸다. 일반인 참가자가 주인공인 만큼 이들의 과거 논란에 직격타를 맞기 때문이다.

한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진은 10~20대 참가자를 대상으로 학폭 유무와 학창시절 교우관계를 재차 묻는 등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제작에 착수한 서바이벌 예능 제작진도 지원서에 종교 관련 문항을 추가하고, 면접 단계에서 학폭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질문할 계획이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연자의 과거 논란을 원천 차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방송가의 긴장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13일 한 예능프로그램 PD는 “제작진이 많게는 4~5차례까지 면접을 반복하며 조심하지만, 일반인 참가자들은 이름이 알려진 연예인에 비해 이력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힘든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